

제1 교시

국어 영역

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와 삶의 여유를 누리지만,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윤리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생명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의 갈등 등의 윤리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환경 오염 문제의 주된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지, 기업이냐 국가에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누구 하나를 지목하여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인간을 존중하라.'와 같은 전통적인 윤리 규범을 토대로 배아 복제 문제를 검토할 때 배아를 인간으로 간주하고 복제를 반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배아는 인간이 아니므로 난치병 치료를 위해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현대의 윤리 문제는 과거에 비해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거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준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 윤리 영역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낙태, 생명 복제, 동물 실험과 동물의 권리 등 삶과 죽음 및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회 윤리 영역에서는 직업 윤리 문제, 공정한 분배 및 처벌과 관련된 문제, 시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과학 윤리 영역에서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 정보 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문화 윤리 영역에서는 예술 및 대중문화와 관련된 문제, 의식주 및 소비와 관련된 문제, 다문화 관련 문제, 종교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평화 윤리 영역에서는 사회 갈등 문제, 통일 문제, 국제 사회의 분쟁과 국가 간의 빈부 격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나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도덕적 실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학문을 이론 학문과 실천 학문으로 구분한 최초의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에 따

면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이론 학문은 대체로 진리와 지식의 발견에 관심을 둔다. 반면에 실천 학문은 진리와 지식의 발견과 더불어 그것의 실천에 주된 관심을 두는데, 대표적인 실천 학문이 바로 윤리학이다.

윤리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따라서 분석이나 기술에 치중하는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규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 윤리학은 어떤 도덕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대표적으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등이 있다.

한편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에서 제공하는 도덕 원리를 토대로 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실천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생명 복제, 사형제도, 기후 정의 문제 등 현대인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직접 다루며,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이 때문에 실천 윤리학은 '문제 중심 윤리학' 또는 '응용 윤리학'이라고 불릴 만큼 실천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모두 윤리 문제의 해결과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안내한다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 윤리학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이론 윤리학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윤리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천 윤리학은 생명의 존엄성 실현 또는 사회적 효용의 증대 등과 관련된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이론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실천 윤리학도 어떤 윤리 이론이 타당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데 관심을 가진다.

둘째, 윤리 문제에 학제적으로 접근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생각해 보자. 앞의 신문 기사에 담겨 있는 윤리 문제는 '무뇌증 태아의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실천 윤리학이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생명 존중의 도덕 원리나 윤리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즉 관련 법률과 무뇌증에 관한 생명 과학 및 의학 지식도 필요하며, 종교계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실천 윤리학은 오늘날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분석하고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한다.

위와 같이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실천 윤리학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 ②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 ③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 ④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 ⑤ (가),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을 :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한다.

- ① 갑 :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② 갑 :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을 :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 ④ 을 :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⑤ 갑, 을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3.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제안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의 근거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환경오염, 연명 치료 중단, 사형 제도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 ① (가)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② (가) :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실태 조사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③ (나) :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④ (나) :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도덕 원리의 적용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⑤ (가), (나) :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4.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② (가) :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 ③ (나) :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④ (나) :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 ⑤ (가), (나) :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2. 동양 윤리의 접근

동양 윤리적 접근은 크게 유교, 불교, 도가 윤리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에 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유교 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이상 사회의 실현에 있다. 공자는 인(仁)을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인간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를 계승한 맹자는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유교 윤리에서는 이러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양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인 성인(聖人)이나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유교 윤리는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중시한다. 유교 윤리에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충서(忠恕)'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신이나 수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수기 이안인(修己以安人)'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이렇듯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교의 특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교 윤리의 핵심 규범인 오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유교 윤리에서는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통치 방법과 관련하여 형벌이나 무력보다는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들을 교화하며,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유교 윤리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大同社會)'라는 이상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특징으로 하는 유교 윤리는 현대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먼저 유교 윤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도덕규범을 지키지 않아 이웃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유교 윤리에서 강조하는 자기 수양의 자세를 되살린다면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유교 윤리는 인간성 상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간을 단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도 한다. 인간을 내면적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유교 윤리는 이러한 풍조를 완화하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유교 윤리는 지나친 개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기주의로 변질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유교 윤리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윤리를 현대적으로 되살린다면 이러한 이기주의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불교 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연기(緣起)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연기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일정한 원인[因]과 조건[緣]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

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하여 자비(慈悲)의 마음이 저절로 생길 뿐만 아니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불교 윤리에서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4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으로 계, 정, 혜의 삼학 등과 같은 수행 방법을 통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승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불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나면 열반 혹은 해탈이라는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연기적 세계관, 평등적 세계관, 주체적 인간관을 특징으로 하는 불교 윤리는 현대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먼저 불교 윤리는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신 수양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음의 고통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불교는 참선과 같은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 현대인들이 평정심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불교 윤리는 생명 경시 풍조나 생태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불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분별한 살생과 환경 파괴를 경계할 수 있다.

그리고 불교 윤리는 보편적인 인류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민족이나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이들이 전쟁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비의 실천으로 대중을 구제하려고 했던 불교 윤리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발휘하여 전 세계인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도가 윤리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노자는 "도(道)는 자연을 본 받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의 특성이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주장하였다. 도가 윤리는 이러한 무위자연을 이상적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1국 과민을 이상 사회로 본다.

더불어 도가 윤리는 평등적 세계관을 강조한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천하게 여기겠는가?"라고 하여, 세상 만물은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는 상태를 제물(齊物)이라고 한다. 도가 윤리는 제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좌망과 심재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모든 차별이 소멸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이상적 인간을 지인(至人), 진인(真人), 신인(神人), 천인(天人)이라고 부른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과 평등적 세계관을 특징으로 하는 도가 윤리는 현대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먼저 도가 윤리는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위자연이나 제물을 강조한 도가 윤리는 내면의 자유로움을 추구함으로써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

복에 이를 수 있게 한다.

또한 도가 윤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도가 윤리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

5.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온갖 것을 섬길 뿐, 그것들과 다투는 일이 없다.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기에 도(道)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다투는 일이 없으니 나무람받을 일도 없다.

- ① 집착에서 벗어나 무욕(無欲)에 이르는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 ② 선천적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禮)에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③ 자연 만물의 연기성(緣起性)을 깨달아 자비로운 삶을 추구한다.
- ④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독(慎獨)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⑤ 도덕적 본성의 확충을 위해 거경(居敬)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6.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들리지 않는 데에서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숨은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에도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것[慎獨]이다.

- ①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禮)를 실현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② 인의(仁義)를 버리고 자연의 소박한 덕을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③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心齋] 천리를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④ 우주 만물의 무상함을 깨닫고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慈悲]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7. (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자신의 수양을 경(敬)으로써 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 요순(堯舜)도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여기고 노력하였다.
- (나)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면 무위(無爲)에 이른다. 무언가 일삼으려 하면 오히려 부족하며,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

- ①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하는가?
- ②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③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④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⑤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8. 다음 사상이 강조하는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 중생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망상에 빠져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 그 자체임을 모르고, 마음 밖에서 그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맨다. 만약 한 생각이 나온 곳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비춰 보면, 이 본성은 원래 번뇌가 없는 완전한 지혜로,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 ① 내 마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參禪)해야 한다.
- ②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좌망(坐忘)해야 한다.
- ③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거경(居敬)해야 한다.
- ④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독(慎獨)해야 한다.
- ⑤ 도(道)에 따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기 위해 심재(心齋)해야 한다.

3. 서양 윤리의 접근

서양 윤리적 접근은 크게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도덕 과학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탐구할 때 동양 윤리적 접근과 더불어 서양 윤리적 접근을 통해 더 풍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의무론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타당한 법칙이 존재하며, 우리의 행위가 이 법칙을 따르면 옳고 따르지 않으면 그르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의무론의 대표적인 윤리 사상으로는 칸트 윤리와 자연법 윤리가 있다.

칸트는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면서 오로지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다.

칸트는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였다. 칸트는 어떤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먼저 해당 준칙을 보편 진술로 바꾼 후에 그 진술을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 진술이 이 검토를 통과하면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거부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 윤리가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보편적인 윤리를 확립하여 도덕적 판단의 확고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인간 존엄성의 정신을 강조하여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무론적 접근의 또 다른 예로 자연법 윤리를 들 수 있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이다. 윤리적 의사 결정에서 자연법 윤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핵심 명제를 강조한다.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는 옳지만 그것을 어기는 행위는 그르다. 이처럼 자연법 윤리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어떤 행위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를 검토한다.

그렇다면 자연의 질서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으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을 제시하였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자신과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과 이성적 존재로서 진리를 파악하려는 성향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자연법 윤리는 생명의 불가침성 및 존엄성, 인간 양심의 자유, 만민 평등 등의 자연법적 권리를 도출한다.

자연법 윤리가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인간의 자연적 생명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입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리주의는 행동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행복을 산출해 냈는지를 주목한다.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善)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

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으며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가정하고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낮은 수준의 쾌락과 높은 수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하고 그 질적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공리주의는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행위의 결과인지, 그 행위에 적용되는 규칙의 결과인지에 따라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구분한다. 이때 행위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라는 물음을,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공리주의가 유용성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이다. 이는 예상되는 비용과 혜택의 비율을 따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개발에 따른 혜택을 계산한 후,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면 개발을 하는 것이다.

공리주의가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를 통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뿌리를 둔 현대의 덕 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체가 중시하는 용기나 진실성 등의 덕목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덕 윤리는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결정을 하려면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품성을 갖추려면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여 자신의 행위로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덕 윤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강조한다. 매킨타이어와 같은 현대의 덕 윤리학자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한다. 따라서 덕 윤리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판단은 구체적이며 맥락적 사고를 반영한다.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덕 윤리는 특정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것을 행하라고 요구한다. 즉 "보편타당한 규칙을 따르라." 또는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하라."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며, 이를 위하여 "정직한 사람이 할 법한 것을 행하라."라고 요구한다.

그렇다면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덕 윤리가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먼저 덕 윤리는 윤리학의 논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품성의 바름'을 추구하는 덕 윤리는 실천 윤리학의 논의 범위를 윤리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탐구까지 확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덕 윤리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에 관한 개인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윤리학은 인간 존재의 특성이나 윤리 문제를 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도덕 과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도덕 과학적 접근으로는 신경 윤리학과 진화 윤리학이 있다.

신경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 혹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 과 정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간이 자유 의지나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과학적 측정 방법, 예를 들면 뇌의 전면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진화 윤리학은 도덕성을 진화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과거 수백만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추상적인 도덕 원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즉 이타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신경 윤리학이나 진화 윤리학이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어떻게 도덕성을 형성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구는 도덕적 삶의 방향이나 목적의 설정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도덕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 어떤 요인이 도덕성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오늘날 당면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도덕 과학적 연구의 성과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가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을 :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 ① 갑 :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갑 :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이다.
- ③ 을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 ④ 을 :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 ⑤ 갑, 을 :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하는 행위들에 의해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또한 위험에 당면해 무서워하거나 태연한 마음을 지니는 태도에 따라 비겁한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문제 상황>

A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홈페이지 보안 시스템 책임자이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A에게 고객 B의 부당 거래가 의심이 된다며 B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개인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고객들과 약속한 상태이다. 이에 A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인품에 비추어 판단하세오.
- ② 개인의 권익이 회사와 공동체의 이익보다 중요함을 고려하세오.
- ③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 의식에 의해 상사의 요구에 응하세오.
- ④ 개인 정보를 공개할 때 발생할 결과의 유용성을 측정해 판단하세오.
- ⑤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세오.

1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떤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르다. 행위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이다. 윤리적 의사 결정은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나) 어떤 행위 규범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규범적으로 정당한 실천적 담론은 의사소통의 일반적 전체 조건들에 근거해야 한다

- ① (가):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가): 유용성의 원리는 행위 규칙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된다.
- ③ (나): 모든 당사자들은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
- ④ (나): 담론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 ⑤ (가), (나):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규칙이나 규범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12.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개인은 가족, 이웃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할 기회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도 없다.

을 :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 ①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 ②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구체적 맥락을 배제해야 함을 무시한다.
- ③ 도덕 판단의 기준이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임을 간과한다.
- ④ 사회 전체의 행복 최대화가 보편적 도덕 원리임을 간과한다.
- ⑤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13.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앞서 ‘나는 어떤 이야기 또는 이야기들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나의 삶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있고, 나의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속에서 발견된다.

을 :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원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으로서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 ①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② 보편적 도덕 원리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도덕 판단에서 역사적 특수성보다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4.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탐구란 진리와 학문 등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탐구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나 지식 획득을 위한 방법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도덕적 탐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덕적 탐구란 도덕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적 활동을 의미하며,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도 도덕 현상을 이해하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의 방법을 중시한다. 이러한 도덕적 탐구는 일반적인 탐구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도덕적 탐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당위적 차원에 주목한다. 일반적인 탐구는 사회 및 자연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밝혀내는데 중점을 둔다. 반면에 도덕적 탐구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주목하여 탐구 대상의 옳고 그름 혹은 선과 악을 밝혀서 행위를 정당화하고 도덕적 실천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도덕적 탐구는 대체로 합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으로 이루어진다. 도덕적 추론이란 딜레마 상황에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도덕적 탐구는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다. 도덕적 탐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이성적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감, 배려 등의 정서적인 측면도 중시한다. 흔히 도덕적 탐구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공감과 배려, 도덕적 분노,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는 탐구의 정당성을 높이고 탐구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 줄 수 있다.

도덕적 탐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가치관을 세우며, 타인을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탐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탐구는 개념의 명료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찾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중요하다. 도덕적 탐구는 이러한 일반적인 탐구의 방법을 반영하면서도 앞서 언급했던 도덕적 탐구의 특징을 동시에 고려한다. 도덕적 탐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즉 윤리적 쟁점 혹은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관련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 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에 여러 가지 사항이 관련되어 있을 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고 대안을 설정하며, 이에 관한 정당화 근거를 제시한다. 정당화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할 교환 탐색과 보편화 가능성 탐색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감과 배려 같은 도덕적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다. 이때 토론을 통해 윤리적 쟁

점 또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론은 주장하기, 반론하기, 재반론하기, 정리하기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은 자신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기주장을 관철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도덕적 탐구 활동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탐구 과정에서 나의 참여 태도는 적절했는가? 탐구 활동을 통하여 배운 점은 무엇인가? 처음의 나의 생각에서 바뀐 것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도덕적 탐구 방법의 다섯 단계는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는 이를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적 탐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해석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윤리적 성찰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가짐, 행동 또는 그 속에 담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하여 윤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이다. 이러한 윤리적 성찰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도덕적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과 연결된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비도덕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윤리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함으로써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성찰은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윤리적 실천력을 높이고 나아가 도덕적 자신의 변화 혹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참다운 인격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윤리적 성찰을 통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으며,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먼지 낀 거울을 매일 닦아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윤리적 성찰의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성찰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자신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응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자기 중심적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을 할 때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정당한가? 왜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유형의 물음을 스스로 묻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며, 이미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서양의 풍부한 윤리적 전통에 근거한 윤리적 성찰의 방법도 있다. 예를들어 유교에서는 증자가 제시한 일일삼성(一日三省)이나 서경의 수양 방법이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참선을 성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선은 무엇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맑은 본성을 찾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앉아서 하는 수행법이다. 더불어 서양 윤리적 전통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 있다. 산파술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도덕적 탐구나 윤리적 성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윤리적 성찰 없이 도덕적 탐구에만 치중한다면 단순한 지식과 사고력만 향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반대로 우리가 도덕적 탐구 없이 윤리적 성찰에만 치중한다면 사물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이치에 관한 진정한 깨달음에 근거하여 행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또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통해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탐구와 성찰은 공허할 뿐이다.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만 배움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결국 사람됨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위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체의 활동 과정을 ‘윤리학’이라고 한다.

인간은 윤리적 삶을 영위해 가는 도덕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윤리적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적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

14.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 ① 토론에서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한다.
- ② 토론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실만을 발언하는 것이다.
- ③ 토론에서는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 ④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 추구의 조건이다.
- ⑤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1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의사는 질병에 관한 전문 지식을 지니지만 환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의 선을 위해 간섭하듯이, 의사도 환자의 선을 위해 온정적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을 : 물론 전문 지식은 차이가 있고 의학적인 온정적 간섭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갖기 때문에, 그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갑 : 환자 역시 인간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치료에 있어 어린이와 같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의견이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사명은 질병 치료이니까요.

을 : 질병 치료가 의사의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건강 이외에도 다른 여러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보다는 환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① 질병 치료가 의사의 본질적 사명인가?
- ② 의사의 온정적 간섭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 ③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 ④ 의사와 환자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에 있어서 비대칭적인가?
- 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가?

1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장기 기증의 권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장기는 몸의 부분이고 몸은 인간 존엄성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을 : 몸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몸 자체와 달리 몸의 부분은 자발적으로 기증하면 존엄성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갑 : 전체도 부분으로 이루어지므로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의 이식은 존엄성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기증의 허용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을 : 물론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몸의 소유권은 장기를 기증할 자기 결정권을 당연히 함의합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 ② 장기 매매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 ③ 개인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가?
- ④ 몸 자체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토대인가?
- ⑤ 개인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자유를 지니는가?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충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물이나 명성과 명예는 최대한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도 지혜와 진리,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속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사 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피고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악마 같다고 비난했으나, 그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자신이 비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 ① 영혼의 훌륭함보다는 명성과 명예를 추구해야 한다.
- ②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 ③ 옳음보다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 ④ 직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5. 삶과 죽음의 윤리

생물학적 의미에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단계이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가족 구성원은 기쁜 마음으로 그 생명을 맞이한다. 그 이유는 출생이 생물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생이 갖는 윤리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출생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자연법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출생을 통해 이러한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출생은 도덕적 주체로 사는 삶의 출발점이다. 출생을 통한 신체적 독립은 정신적 독립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도덕적 주체로 성장해 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교에서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 삶은 도덕적 완성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출생은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다. 출생과 동시에 인간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가 되어 다양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오늘날 생명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출생의 신비가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우리는 위와 같은 윤리적 의미를 지니는 출생과 생명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출생 과정에 의료 기술이 개입하면서 인공 임신 중절, 생명 복제 등의 문제가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출생으로 시작된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태어났을 때 나이 들고 아프다가 죽는 것 [生老病死] 이 인간의 삶이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평등성을,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점에서 불가피성을, 누구나 한번은 죽는다는 점에서 일회성을,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비가역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죽음은 어떤 윤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먼저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은 인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자각하며 살라고 하였다. 죽음의 자각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성찰하게 하여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또한 죽음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한 사람의 죽음은 가족과 이웃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에 슬픔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상례(喪禮) 및 제례(祭禮)를 통해 죽음을 애도하고 죽은 사람을 기억한다.

위와 같이 출생과 죽음의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삶이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낙사 등 출생 및 죽음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인공 임신 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하여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로 '낙태'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윤리 이론은 인공 임신 중절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불교 윤리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을 '살아 있는 것을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 된다.'라는 불살생계(不殺生戒)를 어기는 행위로 본다. 자연법 윤리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을 생명과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 칸트 윤리에서도 인공 임신 중절을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므로 보편화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통해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모자 보건법」에서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보호할 것인가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으로 보호하자는 입장(pro-life)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으로 보호하자는 입장(pro-choice)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고 있다.

또 하나의 윤리적 쟁점은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공 임신 중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은 태교를 강조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 출생과 동시에 나이를 한 살로 셈하는 전통, 태아에게 상속권 등의 일정 권리를 부여하는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도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논쟁하는 인공 임신 중절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살에 관해 인류가 공유하는 태도는 자살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살이 갖는 윤리적 문제 때문이다.

먼저 자살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유교는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효의 시작으로 보며, 불교는 '불살생'의 계율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한다. 그리스도교는 신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아퀴나스는 자살이 자기 보존을 거스르는 부당한 행위라고 본다.

또한 자살은 자기 삶의 일회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격을 훼손하고 자아를 실현할 가능성을 없애 버리는 일이다. 칸트는 자살이 인간의 인격을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쇼펜하우어도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으로 한 번뿐인 삶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살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 주며,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킨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은 모방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자살의 원인은 심리적,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하다. 이러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과 사회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명의 가치

와 삶의 소중함의 관점에서 자살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안락사는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이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차츰 증가하고 있지만, 안락사를 허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중시한다. 이들은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며,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유교 및 도가뿐만 아니라 자연법 윤리와 의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의료인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므로, 의료인이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이와 같은 안락사 논쟁에서는 환자의자율성 존중, 생명의 가치, 그리고 의료인의 책무를 함께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죽음을 판정하는 전통적인 기준은 심폐사이다. 즉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해야 사망한 것으로 판정한다. 그런데 간혹 사고 등으로 심장 및 폐의 기능보다 뇌의 기능이 먼저 멈추어 뇌사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뇌사에 이른 환자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다. 인공호흡기 등 연명 의료 기기를 이용하여 일정 기간 호흡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가까운 시일 안에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한다. 이러한 뇌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이다.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뇌가 인간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므로 뇌 기능이 정지하면 가까운 시기에 심장과 폐의 기능도 정지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면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도 도움이 되고, 뇌사자의 장기를 장기 이식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뇌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연명 의료 기기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이나마 호흡과 심장 박동이 유지되므로 아직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드물지만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도 제기한다.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윤리적, 의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8.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아는 인간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에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임신부의 질병 등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나중에 더 좋은 상황에서 임신하려는 경우라면 임신 중절은 허용됩니다.

태아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태아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 보 기 >
- ㄱ. 갑 :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ㄴ. 을 : 태아는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랄 것이다.
 - ㄷ. 을 : 태아는 합리적 · 자의식적인 존재이기에 해쳐서는 안 된다.
 - ㄹ. 갑, 을 : 태아를 단순한 세포 조직처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뜻이 있는 선비와 인(仁)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는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을 : 성인(聖人)의 삶은 자연의 운행과 같고, 죽음은 만물의 변화와 같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다. 그의 삶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고, 죽음은 휴식과 같다.

- ① 갑 : 죽음은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 ② 갑 : 죽음은 내세(來世)에서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 ③ 을 : 죽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인 도(道)와 연관된 현상이다.
- ④ 을 : 죽음은 상례(喪禮)를 통해 애도해야만 하는 슬픈 일이다.
- ⑤ 갑, 을 :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만 한다.

20.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네.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네.
 (나) 삶과 죽음은 춘추동동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네.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니 자연을 따라가고 따라올 뿐이네.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진인(眞人)이라 하네.

— < 보 기 > —

ㄱ. (가): 죽음은 기(氣)가 흩어지는 것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ㄴ. (가): 죽음보다는 인의(仁義)에 충실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ㄷ. (나): 죽음은 인간이 윤회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이다.
 ㄹ. (가), (나):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 준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을 : 죽음은 현존재의 종말이다. 하지만 현존재의 죽음을 단순히 다른 생물의 종말에 입각해 파악해서는 안 된다. 현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과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 ① 갑 :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② 갑 : 죽음이라는 실체를 수용해야 불멸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
 ③ 을 :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④ 을 : 현존재는 죽음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고뇌하는 존재이다.
 ⑤ 갑, 을 :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보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22.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희생 불가능한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는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연명 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두는 것이 있다. 전자는 비도덕적인 살인이기에 금지되지만, 후자는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불필요한 고통을 없앤다는 명분으로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 보 기 > —

ㄱ.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뜻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
 ㄴ.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ㄷ. 환자가 희생할 가망이 없을 경우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ㄹ.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3.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심장과 폐가 활동한다 해도,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로 볼 수 없다. 생명체의 활동에 있어서 뇌가 결정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뇌사자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아 보다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뇌사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 보 기 > —

ㄱ.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ㄴ. 뇌사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는가?
 ㄷ. 뇌사자 장기 이식은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을 저해하는가?
 ㄹ. 심폐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만을 죽음으로 판정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생명 윤리

오늘날 생명 과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에 생명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생명 윤리는 생명의 존엄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생명 과학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생명 윤리는 윤리학적 접근을 통해, 생명 과학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생명 과학은 주로 생명의 외적인 현상을 다루므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온전히 밝혀 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알기 위해 동서양의 생명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양의 도가에서는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불교에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고, 불살생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의 보존을 주장한다.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신의 피조물인 생명은 존엄하면서도 일정한 위계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생명관은 아퀴나스와 슈바이처의 생명 사상 등으로 계승되었다.

이처럼 동서양의 생명관은 모두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 실험 등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생명 복제란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1996년 포유류인 양을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복제하는 데 성공한 이후 다른 포유류에서도 복제가 성공하고 있다.

생명 복제는 크게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로 나뉜다.

동물 복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관한 윤리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생각해 보자.

동물 복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물 복제를 통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 유지할 수 있고, 희귀 동물을 보존하며, 멸종 동물을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물 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결과나 행복의 증진에 관심을 둔다. 반면에 동물 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물 복제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며, 종의 다양성을 해치고, 나아가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유용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복제는 배아 복제와 개체 복제로 나뉜다.

배아 복제는 배아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복제 후 배아 단계까지만 발생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배아 복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배아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배아로부터 획득한 줄기세포를 활용해 난치병의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배아 역시 인간의 생명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며, 복제 과정에서 많은 수의 난자 사용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체 복제는 복제를 통해 새로운 인간 개체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간 복제는 이를 가리킨다. 불임 부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개체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개체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개체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복제 인간은 복제를 위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

둘째, 개체 복제는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 어긋난다. 인간은 남녀 두 사람의 사랑과 상호 의존에 의하여 태어나는데, 한 사람의 체세포로부터 인간이 복제된다면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파괴될 수 있다.

셋째, 개체 복제는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한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유전 형질을 물려받기 때문에 고유한 유전 형질을 가진다. 그러나 복제된 인간은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 형질이 같으므로 자신의 고유성을 갖기 어렵다.

넷째, 개체 복제는 가족 관계에 혼란을 준다. 체세포와 난자를 제공한 사람과 복제 인간이 부모 자녀 관계인지 아니면 형제자매 관계인지가 불분명하다.

동물 복제와 배아 복제에 관한 찬반 논쟁, 그리고 개체 복제에 관한 반대 입장은 생명 복제가 생명의 존엄성과 자연의 고유한 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 복제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심사숙고하여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아가 생명 과학 기술은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토대로 발달해야 한다.

유전자 치료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체세포 또는 생식 세포 안에 정상 유전자를 넣어 유전자의 기능을 바로잡거나 이상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이 확립되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어 이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과학적, 의학적, 윤리적 검토의 과정을 거쳤을 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윤리적 검토를 할 때는 생명 의료 윤리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생식 세포, 배아, 태아에 관한 유전자 치료는 금지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의 허용 여부는 의학적 안전성 및 유용성, 생명 의료 윤리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동물 실험은 의학 및 생명 과학 연구 과정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험이다.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화장품과 세제 등 공산품의 안전성 검사, 실험 방법 교육 등에서 광범위하게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 실험은 우리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실험용 쥐,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개, 고양이, 돼지, 그리고 영장류 등 다양한 종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용 동물을 공급하는 상업 회사들도 있다.

그런데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존재한다.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지위를 구별하고, 인간을 위해 다른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인간과 동물은 생물 학적으로 유사하므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과 동물은 존재 지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넣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 중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다.

둘째,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례는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긴밀한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동물 실험 결과를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이 동물 실험에 관해서는 찬반 입장이 있다. 많은 사람은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고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한다. 그는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재깍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유럽에서 마취제 없이 이루어진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편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물에 대한 잔혹한 처우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입장으로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 있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벤담의 주장을 이어받은 싱어는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그는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한편 레건은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과학의 발전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단지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한다.

위와 같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거나 인공 피부 실험, 컴퓨터 모의실험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동물 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물 실험을 통해 생산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동물 보호 및 동물의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이에 관한 올바른 윤리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2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질병 극복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을 :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넘어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 치료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우생학은 부당하지만 개인 차원은 다릅니다. 외에도 대해 성형의 자유를 지니듯이,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고비용 의술로 특정 계층만이 이용 가능해 생물학적 불평등을 낳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①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가?
- ③ 국가는 치료를 넘어선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을 해도 되는가?
- ④ 유전자 조작 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 ⑤ 자질 강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2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동물 복제는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을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일'로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갑 :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을 :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①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②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 ③ 동물 복제는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 ④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⑤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2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는 크게 체세포 치료와 생식선 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만이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체세포 치료는 환자 개인의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므로 허용되지만, 생식선 치료는 개인은 물론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후세대로 이어져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선 치료는 변경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질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 ① 생식선 치료가 유전자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 ②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가?
- ③ 생식선 치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가?
- ④ 유전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생식선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⑤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27.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병'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얕은 미래의 유전 질환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해악만 야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모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을: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얕은 미래의 유전 질환을 감안하여 스스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 보 기 > —

ㄱ. 갑: 자기 유전 정보를 알아야 불필요한 해악을 막을 수 있다.

ㄴ. 갑: 자기 유전 정보에 대한 무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ㄷ. 을: 자기 유전 정보를 알아야 자율적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ㄹ. 갑, 을: 미래의 불가피한 유전 질환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8.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의학 발전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을 : 동물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만, 그것이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갑 :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을 대신할 믿을 만한 대안이 없고,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을 : 아직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도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① 동물과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개체인가?
- ②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 ③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④ 동물 실험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존재하는가?
- ⑤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인가?

2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동물 실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동일한 지적 수준에 있는 인간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실험에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은 우리 종의 구성원이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는 차이에 호소하는 것은 옹호될 수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

— < 보 기 > —

ㄱ. 동물의 이익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동물 실험은 부당한가?

ㄴ. 실험실 동물을 착취하는 것은 중 차별주의적인 행위인가?

ㄷ.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ㄹ. 인간과 동일한 권리들을 지닌 동물을 실험하면 안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사람과 성 윤리

사랑은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지향하는 정서의 최고 단계로서 인간을 도덕적 생활로 이끌며, 인간 상호 간에 인격적 교감을 이루게 한다. 인격적 교감은 인간 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사랑이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사랑은 성(性)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랑하는 남녀는 보다 더 친밀한 교감을 위해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성이 갖는 가치는 무엇일까?

먼저 성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으로서 생식적 가치를 지닌다. 생식적 가치는 자연법 윤리에서 말하는 종족 보존의 자연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성은 인간의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쾌락적 가치를 지닌다. 쾌락적 가치는 성적 욕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성은 남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실현하게 해주는 인격적 가치를 지닌다.

사랑과 성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보수주의 입장은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이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며,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는 부도덕하다고 본다.

중도주의 입장은 사랑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을 결혼과 결부시키지 않으며, 사랑을 동반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는 남녀가 육체적 우 정서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자유주의 입장은 자발적인 동의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숙한 성인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를 옹호하며, 성에 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한다.

이처럼 사랑과 성의 관계에 관한 관점은 다양하지만, 사랑과 성이 인간의 인격과 관련된다고 보는 점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사랑과 성은 서로의 인격을 교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을 잘못 인식할 경우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성차별은 남녀 간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차별이다. 흔히 남성은 모험적이고 활동적인 반면 여성은 안정적이고 수동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부아르가 『제2의 성』에서 “여성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만들어진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된 후 이를 따르게 한다면 다양한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차별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성차별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자아실현을 방해하고, 인간으로서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며, 결국 인권을 침해한다. 또한 성차별

은 남녀 각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양성평등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인간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즉 외부의 부당한 압력,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의 자기 결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어 보자.

성의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면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까?

먼저 타인이 갖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갖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생명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책임하게 행사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무분별한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무고한 인간 생명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부도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의 자기 결정권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인격과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 상품화란 성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팔거나,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이미지를 제과와 연결하여 성을 도구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성매매는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성을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 상품화에 관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존재한다.

성 상품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성의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또한 성 상품화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상품 판매를 위해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상품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성 상품화가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성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한다고 본다. 인간을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성 상품화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또한 성 상품화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사람의 평가 기준을 외모에만 두는 등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 상품화에 관한 찬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성 상품화에 관해 바람직한 안목을 지녀야 한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며 인류 존속을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이라는 공식 제도를 통해 정식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은 다양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가정을 구성하는 의식으로서,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는 양가 친지나 자녀 등 다양한 인간관계로 확장된다. 그리하여 『예기』에서는 “친지가 화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나오지 않는다. 혼인은 만세의 이어짐이다.”라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개인은 결혼을 통해 윤리적 삶으로 들어가며 가족 안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혼에 담긴 윤리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결혼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결혼을 ‘백년가약(百年佳約)’이라고 하는데, 이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결혼은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성격과 습관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합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혼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결혼은 부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 및 관용을 요구한다.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른 가사 분담의 문제 외에도 부부간의 윤리 문제로는 경제적 문제, 부모 부양이나 자녀 양육 등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부부간의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부부는 서로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도덕성 발달에 관한 길리건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 발달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거나 덜 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전통 사회에서 강조한 부부간의 윤리로 부부상경(夫婦相敬)이 있는데, 이는 ‘음양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음양론에 따르면 음양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음양론의 교훈을 되살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간에 신뢰를 지켜야 한다. 전통 사회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간에 정조(貞操)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일부일치를 기본으로 하고 중혼(重婚)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부부간의 윤리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켜 나갈 때 우리는 현대 사회에 어울리는 바람직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가족이 지니는 가치는 무엇일까?

먼저 가족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을 준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 등의 사회생활에서 생긴 심신의 피로를 가정에서 풀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예절을 가르쳐 주어 우리가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의 토대가 된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최소 집단으로서 가족의 화목과 안정은 사회 전체의 화목과 안정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가족 간 대화 단절, 가정 내 아동 학대, 이혼 등의 가족 해체 현상으로 가족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 해체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나 가족 전체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되면 가족 공동체가 와해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족 해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윤리를 잘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부모와 자녀는 서로 배려하면서 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 전통 윤리에서는 자애와 효도를 부자유친(父子有親)과 부자자효(父慈子孝)의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마음을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형제자매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우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씬우제공을 들 수 있다. 형제자매는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로,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을 익히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규범을 익히는 밑거름이 된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족 해체 현상을 극복하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 간의 자애와 효도,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올바르게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30.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결혼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을: ‘사랑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도덕적 성의 조건이며,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① 갑은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는 아니라고 본다.
- ② 갑은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사회 존속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 ③ 을은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31.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가진다. 신이 정한 결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본성은 실현된다. 성(性)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가 된다.

을: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사랑은 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① 갑: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
- ② 갑: 성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인류를 존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 ③ 을: 성은 사랑을 통해 인격적 만남의 차원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 ④ 을: 성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갑, 을: 성은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도덕적이다.

32.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성은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은 그것의 자연적 결과인 출산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에 있다.

을: 성은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에 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갑: 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② 갑: 성은 혼인 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을: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④ 을: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갑, 을: 성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이다.

3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결혼은 당사자 간의 애착과 계약에서 출발한다. 가족은 하나의 인격이며 인륜적 정신이다. 부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실제적 통일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 객관성을 지닌 결합의 전체를 이룬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한편 자녀가 법적 인격과 자신의 재산을 갖추어 가정을 꾸릴 자격이 생길 때 가족의 해체가 시작된다.

— < 보 기 > —

ㄱ.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결합된 인격적인 공동체이다.
 ㄴ. 어린 자녀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이다.
 ㄷ.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
 ㄹ. 결혼은 남녀 간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애착으로 성립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4.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양로(養老)의 예법 중에는 노인에게 교훈이나 길잡이가 되는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드리는 절차가 있다. 그러므로 목민관(牧民官)은 노인에게 백성들이 겪는 괴로움과 질병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그 절차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백성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였다. 목민관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령의 노인을 위해 혜택을 베풀고, 양로의 예법을 제도화하는 데 힘쓰면, 백성들은 노인을 공경할 줄 알게 될 것이다.

— < 보 기 > —

ㄱ. 국가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
 ㄴ. 윗사람의 모범을 통해 장유유서(長幼有序)를 구현할 수 있다.
 ㄷ.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
 ㄹ.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은 정신적·물질적 측면 모두와 관련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직업과 청렴의 윤리

고등학생이 된 우리는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한다. 이는 직업 선택이 인생의 방향이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직업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동양에서 한자어 직업(職業)의 ‘직(職)’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의미하고, ‘업(業)’은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을 뜻한다. 서양에서 직업을 뜻하는 영어 ‘아큐케이션(occupation)’이나 ‘잡(job)’은 보수와 금전을 획득하는 경제력의 근원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달리 ‘프러페션(profession)’은 일이 지니는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강조한다. 영어 ‘보케이션(vocation)’이나 ‘콜링(calling)’은 사명감, 신의 부름을 받아 행하는 일로 도덕적,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직업이란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라 일정 기간 일에 종사하며 경제적 재화를 받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오늘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거나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개인이 평생 여러 직업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직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 바람직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직업은 우리의 행복한 삶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 먼저 직업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우리는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은 사회적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한다. 즉 인간은 직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속감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리고 직업은 자아실현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직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잠재적인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직업은 경제적 기반의 토대이자 사회와의 연결 고리이며,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실현하게 한다. 개인은 직업을 통해 올바른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인격을 형성하여 행복한 삶에 이른다. 우리는 삶에서 직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때 다양한 경험과 탐구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직업 생활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즉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직업 윤리란 직업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가치와 행동 규범으로, 예로부터 동서양에서는 직업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양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소명(石命) 의식을 강조하였다.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칼뱅은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종사하

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각자 맡은 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검소하고 금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동양의 유교 윤리에서도 생활 속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 정신이 전해 온다. 공자는 『논어』에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자신이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직업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장인(匠人)정신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장인 정신이란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지고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에 정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평생 한 가지 일에 헌신해 온 장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강조되는 직업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동서양에서는 모두 직업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의식이나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직업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직업 윤리의 일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환자의 의료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 윤리,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윤리 등은 각각의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특수한 행동 규범으로, 직업 윤리의 특수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직업 윤리의 특수성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직업마다 요구되는 다양한 직업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가는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기업가의 경제 활동은 기업의 유지와 발전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가가 기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기업가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기업가의 이윤 추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업가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편법이나 탈세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는 건전한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기업가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기업가와 더불어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근로자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기업가와 맺은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약속이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에 관해 전문성을 가질 때 일의 능률이 향상되고 개인과 기업,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기업가와 근로자는 고용 문제, 근로 조건 등과 같은 쟁점에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상생적 관계이기도 하다. 기업가와 근로자가 상생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앞서 살펴보았던 기업

가 윤리와 근로자 윤리를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중소기업 노사협의회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전문직이란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말한다. 전문직은 전문성, 독점성,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 윤리가 요구된다.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각각의 직능 단체를 결성하고 자율적으로 윤리 현장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보는 직책이나 직무를 맡은 사람이다. 공직자는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공직자는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맡은 바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권이 백성을 위하여 있듯이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이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리하여 공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할 경우 국가와 국민 생활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게 되므로 공직자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직업 생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만, 직업 생활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을 때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패이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청렴이란 성품과 품행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청렴을 강조하는 전통 윤리로 청백리 정신을 들 수 있다. 청백리 정신은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일에 충심을 다하려는 정신이다. 청백리 정신을 강조한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라고 하여 청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오늘날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업 생활의 전반에서 청렴의 윤리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 생활의 전반에서 청렴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청렴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여 자아실현에 도움을 준다. 청렴은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갖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청렴은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준다. 청렴은 직업인에게 신뢰와 정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직업 윤리를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

직업 생활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막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청렴 의식도 중요하지만, 사회 윤리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부 공익 신고 제도 운용, 부패 방지법 제정,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 강화 등과 같이 청렴 의식을 제도적, 사회적으로 확립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만약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恒産]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해질 것이다.
-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만든 갑옷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선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지 아니 할 수 없다.

- ①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유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 ②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
- ③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 ④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⑤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해야 한다.

36.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로테스탄트는 자신의 구원의 여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직업 노동을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확신에 이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이들의 금욕주의가 세속의 윤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근대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거나 경제적 강제로 느껴질 경우 인간은 영혼 없는 전문가, 열정 없는 향락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 ①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징표라고 보는가?
- ②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가?
- ③ 금욕주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④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으로 보는가?
- ⑤ 프로테스탄트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를 영혼의 타락으로 보는가?

37.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명(正名)이라 한다.

을 :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 여러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正義)라 한다.

< 보 기 >

ㄱ.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ㄴ.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ㄷ.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ㄹ.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8.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기업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이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기업은 소비자 불매운동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헌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 보 기 >

ㄱ.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ㄴ. 기업은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경영되어야 하는가?

ㄷ. 기업은 공익의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ㄹ. 기업은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9.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賈]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 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恩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私]이 행해진 것이다.

- ① 청렴은 목민관의 어떤 과오도 면책시켜 주는 지혜로운 덕목이다.
- ② 청렴한 목민관에게 청백리(清白吏) 칭호는 관직 상승의 수단이다.
- ③ 포부가 원대하고 지혜로운 목민관은 부패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 ④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청탁(請託)은 가능하다.
- ⑤ 목민관의 청렴은 애민(愛民)과 봉공(奉公)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40.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 성인(聖人)이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자기를 봉양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갈등과 투쟁이 생겨 서로 죽이기까지 하거니와,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 평화롭게 해 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할 수 없으므로, 백성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稅)로 바쳐 통치자를 공양(供養)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이 큰 만큼, 백성에 대한 보답도 무거운 것이다. 후세의 통치자는 세금 제도를 만든 의의를 모르고 ‘백성이 나를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혹하게 수취하니,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 서로 싸워 국가가 혼란해진다.

- ① 공직자는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며 나랏일에 충실해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 ③ 공직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일환이다.
- ④ 공직자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봉사로서 보답해야 한다.
- ⑤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과 국가의 분란을 야기한다.

9. 사회 정의와 윤리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 윤리를 중시하면서 개인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윤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빈부 격차, 인종 차별, 부정부패 등과 같은 사회 문제는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 회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사회 구조와 제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도덕규범으로서의 사회 윤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 윤리를 강조한 니부어는 도덕적인 개인이라도 비도덕적인 사회에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정의를 사회의 도덕적 이상으로 제시하며 사회 구조나 제도의 도덕성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이다. 공정함 또는 올바름이라는 정의의 개념은 두 사람 이상의 사회적 관계에서 구현되는 가치라는 점에서 사회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회 정의는 크게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이익과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과 관련된 것이 분배적 정의이다. 분배적 정의란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실현된다.

분배적 정의의 기준에는 절대적 평등, 업적, 능력, 필요 등이 있다. 그런데 각각은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각각의 분배 기준은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분배 기준 자체보다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절차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의 공정성도 보장된다고 보고, 분배 방식을 결정할 때 특정한 분배의 기준이 아니라 논의의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준수되었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와 같은 절차적 정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롤스와 노직을 들 수 있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부터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따를 때 공정한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지위나 계층, 능력 등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우연적인 조건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갖고, 가장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하게 된다.

반면 노직은 제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가 강압, 절도, 사기, 강제 계약의 발생을 막는 일 이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제화의 분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최대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다양하다. 이 기준을 우리 삶의 영역에 적용할 때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우대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상의 논리가 있다. 과거의 차별 때문에 고통받아 온 사회적 약자는 그 고통에 관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분배의 논리가 있다.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유리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리주의 논리가 있다. 우대 정책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비판한다. 먼저 우대 정책은 다른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차별에 관해 잘못이 없는 현대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대 정책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은 업적 주의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유세와 같은 조세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있다. 부유세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빈부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부유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얻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부유세는 세금을 두 번 부과하는 것과 같아서 부자들에게 대한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정적 정의는 어떤 잘못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며, 이는 주로 국가가 법 집행에 의한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나 부정의를 바로잡음으로써 실현된다. 이러한 법에 따른 처벌을 정당화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응보주의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본다. 칸트는,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하므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관점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공리주의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처벌은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예방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때 가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관점은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고,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알아보자.

먼저 처벌의 근거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있다.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해악을 준 사실만을 처벌의 근거로 본다. 반면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 이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심지어 죄가 없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처벌의 정도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있다.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처벌의 경중을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가벼운 범죄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범죄의 해악 정도보다는 사회의 이익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한 범죄 억제력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과 관련하여 사형 제도가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사형이란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 제도는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오늘날 처벌로서의 적합성과 예방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의 생명권을 제한해야 하며, 사형 제도가 극악한 범죄에 관한 처벌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응보주의 관점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을 해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응보의 원리를 충족하기 때문에 정당하다. 특히 칸트는 동등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범죄는 사형을 통해 응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생명권도 보장해야 하며, 사형 제도가 예방 효과가 없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처벌이 아니라고 말한다. 특수 예방주의 관점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재사회화하여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인데,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형 제도의 찬반 논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형 제도의 존폐 문제는 인간 존엄성, 처벌의 본질,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판단해야 한다.

41.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 ①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 ③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커진다.
- ④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 ⑤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

42.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을 :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점, 따라서 생산 능력도 타고난 특권임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산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병 :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 ① 갑: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
- ② 을: 노동 분업은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다.
- ③ 병: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다.
- ④ 갑, 병: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여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 ⑤ 을, 병: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승인될 수 없다.

43.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 ①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 ②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 ③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 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 ④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4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을: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어나 적합한 형벌이다.

< 보 기 >

ㄱ. 갑: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ㄴ. 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ㄷ.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5.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형벌은 보편 법칙을 입법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형벌은 스스로가 한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을: 공공 의사의 표현인 법은 살인을 증오하고 그 행위를 처벌한다. 살인범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 ① 형벌은 범죄와의 응보적 관계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가?
- ② 사형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닌 공적 차원의 형벌인가?
- ③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형벌인가?
- ④ 형벌로 얻는 공공 이익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 하는가?
- 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가 아닌 타인의 범죄 예방에 국한되는가?

10. 국가와 시민의 윤리

국가는 구성원인 시민에게 다양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시민에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거나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국가가 시민에게 다양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국가가 가지는 권위는 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혹은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지니는 명령권 혹은 통치권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먼저 서양에서는 국가의 권위를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정당화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게 되어 있는 동물이다.”라고 하여 국가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 본성에 따라 성립된 국가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갖게 된다.

또한 동양의 관점에서 정당화한다.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약속한다.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가는 각 개인에게 국가의 명령을 내리거나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외에 국가가 각 개인에게 공공재와 관행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동양에서는 주로 국가의 권위를 민의에 기초한 천명(天命)의 관점에서 정당화한다. 특히 유교 사상은 군주의 통치권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보며,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므로 군주의 통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가 백성을 바르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줄 때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때 국가의 권위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이처럼 국가가 시민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에는 먼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재산, 인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로크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행위나 일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자격이나 자유 또는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시민의 사회 보장과 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맹자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시민은 부도덕한 일을 하기 쉽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국가는 개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 자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 보장과 복지를 증진할 때 국가 권위의 정당

성을 얻을 수 있다.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우선시한다면 오히려 각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민이 해야 하는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것을 시민의 핵심적 자질로 여겼다. 또한 동양에서는 군주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제도가 있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참여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주인 의식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여이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참여는 시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보장받고,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시민의 참여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고, 공동체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오늘날 시민 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선거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선거로 뽑힌 시민의 대표가 정치 활동 과정에서 시민을 대변한다. 이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이들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했는지, 또 제대로 심의했는지 명확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주민 투표,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 참여, 시민 단체 활동,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활동, 행정 기관에 민원 청구 및 건의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다양한 참여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 참여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시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 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

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에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시민 불복종 행위는 법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간디는 영국의 부당한 법률을 거부하고 인도 국민의 공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소금 법 폐지 행진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단지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 정의를 훼손한 법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간디와 그 일행은 소금을 직접 만드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금 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처럼 시민 불복종은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간디는 소금 법을 폐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이 실패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방식으로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을 때, 확실히 시정될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기다리기에는 피해가 점점 심각해질 때와 같은 상황에서 시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간디와 그 일행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기본적으로는 법을 존중하고 정당한 법체계를 세우려는 운동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다.

시민 불복종은 위와 같은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4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백성을 선한 데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한다.

을 :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보다 하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 보 기 >

ㄱ. 갑 : 국가의 통치자는 덕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
 ㄴ. 갑 :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ㄷ. 을 :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
 ㄹ. 갑, 을 :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우리가 오직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에서 유래한다. 이 이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국가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국가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을 :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개인들은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한다. 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약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와 저항할 권리의 근거가 된다.

< 보 기 >

ㄱ. 갑은 국가에 대한 복종을 결과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의무로 본다.
 ㄴ. 을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저항권의 근거로 본다.
 ㄷ. 을은 명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만을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 본다.
 ㄹ. 갑, 을은 국가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체제의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 ①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 ②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 ③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 ④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 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4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다수자에게 호소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에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을 :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주로 행해지며,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되는지를 알려주는 간단한 도덕 규칙은 없다. 한편 우리는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법과 제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는 결과와 무관하게 의도의 적절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시민 불복종을 다수의 정의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시민 불복종자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항의에 대한 국가의 보복적인 억압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법과 제도의 부정의한 정도에 반비례한다고 본다.

11. 과학과 윤리

인간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과학 기술을 발달시켰다. 특히 20세기 이후 등장한 핵융합 기술, 우주 공학 기술, 디지털 기술, 로봇 공학 기술, 생명 공학 기술 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

먼저 과학 기술은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해 주었다. 기계 공학의 발달 및 신소재의 개발 등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가 대량으로 생산되었으며, 삶의 각 영역에서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학 기술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됨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검진 기술과 치료법, 신약 등이 개발되어 각종 난치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 기술이 인류에게 혜택만을 안겨 준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증가는 대기 오염 등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동식물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은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과학은 원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휴대 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생산 현장에서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학 기술은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치 추적 시스템,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 정보 판옵티콘' 사회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아가 과학 기술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기도 한다. 생명 복제와 유전자 조작 등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등장하면서 생명체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 기술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과학 기술 지상주의나 부정적인 면에만 주목하는 과학 기술 혐오주의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최소화해야 한다.

근대 이후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에 관한 종교적 간섭이나 윤리적 평가 등 과학 기술이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에 대한 현대 과학 기술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과학 기술도 윤리적 평가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을 객관적인 사실로 보느냐, 아니면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된 것으로 보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과학 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즉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관찰, 실험 및 논리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얻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가치의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고, 사실을 다루는 과학 기술과 가치를 다루는 윤리는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과학 기술은 윤리적 규제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는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과학 기술이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정당화의 과정과 달리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당화의 과정은 과학 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때에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어떤 이론을 증명할 때 연구자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그 이론 자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견과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된다고 본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가 활용되는 과정에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은 정당화의 과정에서는 타당하지만,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 기술은 윤리적 가치에 의해 지도되고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 기술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당화의 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과학 기술의 본질이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과학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획기적인 과학 기술이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과학 기술의 연구나 활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윤리는 과학 기술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공하며, 과학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과학 기술이 전문화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과학 기술 연구자에게 독점적 지위와 막대한 연구비가 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 연구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과학 기술 연구 윤리란 과학 기술 연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즉 과학 기술 연구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양식을 말한다.

과학 기술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물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날조, 연구 재료와 절차 등을 조작하는 변조, 타인의 생각과 결과 등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는 표절 등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과학 기술 연구자는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학 기술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 기술은 연구 윤리의 준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과학 기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과학 기술을 개발할 때는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즉 과학 기술의 결과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철학자 요나스는 과학 기술 시대에 걸맞은 책임 윤리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과학 기술이 자연을 통제로 파괴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게 됨에 따라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자연은 물론 미래 세대로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아나 환경 문제 등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정 기술, 식량 증산 기술, 대체 에너지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술 영향 평가 제도, 과학기술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나 기구를 만들어 과학 기술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과학 기술의 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장치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과학 기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과학 기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인류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5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대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기술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술 시민권은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접근권만으로는 기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정책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참여만으로도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 ① 기술 사회에서는 기술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②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③ 기술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가?
- ④ 기술 정책은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가?
- ⑤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전문가의 참여만으로 충분히 확보되는가?

5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데,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인공 지능을 통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 동의합니다. 다만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므로 모든 상황에서 인공 지능에게 운전을 맡겨야 합니다.

을 :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순히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 ① 인공 지능의 사용은 인간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가?
- ② 자율 주행 자동차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 ③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가?
- ④ 위급 상황에서 어떤 주체가 자율 주행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가?
- ⑤ 인공 지능의 사용은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5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도록 변형함으로써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해석자로서 자연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을 : 현대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된다.

- ① 갑 :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 ② 갑 : 과학의 목적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진리 탐구 그 자체이다.
- ③ 을 :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 ④ 을 : 현대 기술은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 ⑤ 갑, 을 :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5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위는 인과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행위의 힘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로 인해 인간이 갖게 되는 새로운 행위 능력을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 없이는 기술 능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윤리적 책임에서 면제시켜 준다.
- ② 새로운 윤리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 ③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문제를 기존의 윤리로 해결해야 한다.
- ④ 새로운 윤리는 기술에 대하여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⑤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결여될 때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54.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자들은 과학이 일정한 규칙하에 인과적 필연성을 검증하는 순수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과학은 인식 대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자연은 오직 인과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과학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의심스러울 때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귀 기울여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 < 보 기 > —

ㄱ.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ㄴ.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ㄷ. 과학 기술자는 기술적 응용에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ㄹ.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행해야 할 것과 관련된 책임 개념에 따르면, 현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태의 의존자인 미래 세대는 명령자가 되고, 권력자인 현재대는 의무자가 된다.

— < 보 기 > —

ㄱ. 선의 탐구에서 악의 인식보다 선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

ㄴ.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책임이 발생한다.

ㄷ.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장될수록 자연 파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ㄹ.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 상호 간에 의무를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정보 사회와 윤리

현대 사회는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정보 사회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먼저 생활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제는 시장이나 매장, 은행, 병원, 관공서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맞춤형 누리 방송(IPTV) 등을 통해 장보기, 금융 거래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신분의 노출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의학, 법률 등 과거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었던 정보들이 블로그나 텔레비전 전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되어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전 세계의 정치, 제도, 예술, 풍습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 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정보 기술의 발달은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 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더욱이 한 번 유포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은 주로 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폭력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쉽다. 따라서 가해자들도 사이버 폭력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생활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나만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 정보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신상 털기 등의 사생활 침해는 한 개인에 관한 평가를 왜곡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행복 추구를 방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등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에서 기사, 사진, 영상, 음원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내려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의 소유물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널리 퍼지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없게 만든다. 이에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copyright)'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강조하는 '정보 공유 권리(copyleft)'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이 입장에서는 모든 저작물이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구성된 공공재로, 저작물에 관한 과도한 권리 행사는 새로운 창작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또한 정보를 공유할 때 정보의 질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 권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 기술은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윤리적 성찰이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의 생산, 소비, 유통 과정에서 정보 윤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정보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인간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정보의 이용 가치만을 중시하지 않고 정보가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인간의 삶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윤리 규범에 근거하여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고립주의나 이기주의를 넘어 타인과 건전하게 교류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이나 사생활,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정보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정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매체(media)란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19세기에는 책과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가, 20세기 초반, 중반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의 방송 매체가 정보 전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뉴 미디어(new media)'라고 한다.

뉴 미디어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많은 인쇄 매체가 인터넷 신문, 웹진, 전자책 등으로 대체되었으며, 방송 매체는 인터넷과 연결된 맞춤형 누리 방송과 위성 방송 등으로 진화되었다. 또한 SNS, 블로그, 유시시(UCC) 등의 사회적 매체와 스마트폰이 정보 전달의 중심 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뉴 미디어는 상호 작용화, 비동시화, 탈대중화, 능동

화 등의 특징을 가진다. 먼저 뉴 미디어는 송수신자 간 쌍방향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보 교환에서 송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대규모 집단에 획일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뉴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즉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산적 소비자(prosumer)의 시대, 또는 1인 미디어 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를 생산하고 동시에 유통, 소비하는 주체인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매체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뉴 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알 권리란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사적 권리로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람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은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뉴 미디어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뉴 미디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기사들이 동시적으로 다양한 언론사의 이름을 달고 게재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사 작성자의 권리와 소중한 재산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뉴 미디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나아가 매체 이해력(media literacy)을 갖추어야 한다.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가 형성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랍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뉴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정보 중에는 거짓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거짓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 미디어상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뉴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을 통해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뉴 미디어에 대하여 엄격한 윤리적 책임 의식을 갖고 매체 윤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56.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의 연장하면서도 익명성의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공간이다. 도덕적 책임을 둔감하게 만드는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자아에서 벗어나, 여러 자아를 실험하며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다중 정체성의 위험에 유의한다면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 ① 사이버 자아는 현실 자아의 반영에 불과하다.
- ② 사이버 자아의 익명성은 위험하기에 실명화해야 한다.
- ③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보다 도덕적 책임에 민감하다.
- ④ 사이버 공간은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 ⑤ 사이버 공간의 다중 자아를 금지해 정체성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5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소설 속 존재로, 사회를 철저히 장악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빅 브라더'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을 : 아고라(agora)는 고대 아테네의 광장으로, 자유민들은 이곳에서 민회에 참여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이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현실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있다.

— < 보 기 > —

ㄱ. 갑 :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생활권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ㄴ. 갑 : 정보 통신 기술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한다.
 ㄷ. 을 : 사이버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ㄹ. 갑, 을 :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증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8.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접근 능력과 정보 수용 능력을 가리킨다. 정보 격차는 주로 그러한 능력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약자에게 정보 접근 및 수용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을: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매체의 쌍방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접근 및 수용 능력 이외에 정보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정보 격차는 주로 정보 생산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정보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① 갑: 정보 약자에게는 정보 접근 능력만을 제공해야 한다.
- ② 갑: 정보 격차의 주된 원인은 정보 생산력의 차이에 있다.
- ③ 을: 정보 복지의 핵심 과제는 정보 기기의 평등한 분배이다.
- ④ 을: 정보 약자가 정보 생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갑, 을: 정보 리터러시는 접근 및 수용 능력에 국한되어야 한다.

59.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장발장은 전과자 신분을 숨기고 시장이 되었어.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잊거나 지우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어서 타인이 볼 수 있지.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해.

을: 장발장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를 시장으로 뽑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아야만 한다고 봐.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해야 해.

< 보 기 >

- ㄱ. 갑: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 한다.
- ㄴ. 갑: 잊힐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 ㄷ. 을: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 한다.
- ㄹ. 갑, 을: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물을 창출하는 약한 인공지능(Weak AI)은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저작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한해서 법적으로 보호돼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인공지능이 창출한 생성물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식화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이더라도 독창성만 인정되면 저작물로 봐야 합니다. 향후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넘어서서 독자적 사고를 하는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이 개발되면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성물이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을: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인공지능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성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①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독창성을 지닐 수 있는가?
- ②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가?
- ③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생성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 ④ 강한 인공지능의 생성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가?
- ⑤ 약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모두 저작물로 보아야 하는가?

61.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최대 행복의 원리는 모든 윤리적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례>

A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직장 동료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그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가상 공간에서도 타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② 가상 공간에서도 유용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고려하세요.
- ④ 가상 공간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 ⑤ 가상 공간에서는 쾌락 증진을 위한 행동이 금지됨을 명심하세요.

13. 자연과 윤리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자연을 상의와 화해의 대상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유학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인(仁)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불교에서는 연기설(緣起說)에 근거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고 모든 생명에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였다. 도가에서는 천지 만물을 무위(無爲)의 체계로 보고 인간도 인위적 욕망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고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자연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인간이 신의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자 신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 자연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고 자연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자연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양의 자연관으로부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수용함과 동시에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양의 자연관에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윤리적 입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로 구분된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만이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동물이나 식물 등 인간이 아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공통으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중시하였다.

베이컨은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자연에 관한 지식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데카르트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연을 단순한 물질 또는 기계로 파악함으로써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칸트 역시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반면 자연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였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류가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여 오늘날 발생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자연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물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입장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반대하고, 동물의 복지와 권리의 향상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싱어와 레건이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 즉 쾌고 감수 능력으로 보며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 동물의 고통을 저급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종 차별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레건은 의무론에 기초하여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레건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학대 및 동물 실험 등 동물에 대한 비도덕적 관행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과 식물,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명 중심주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생명 중심주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을 '생명'으로 보며, 모든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생명에 대한 외경을 강조한 슈바이처와 생명의 목적성을 강조한 테일러가 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서명 외경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생명을 고양하는 것은 선이고,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악이며,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할 때도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를 의식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보존과 행복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격체와 닮은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므로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명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생명체에까지 확대하여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오늘날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태 중심주의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 입장에서는 생명 개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개체 중심적인 환경 윤리는 오늘날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생태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전일론(全一論)적 입장을 취한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대지 윤리를 주장한 레오폴드와 심층적 생태주의를 주장한 네스가 있다.

레오폴드는 대지란 자연의 모든 존재가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며 대지 윤리를 주장하였다. 대지 윤리는 인간이 대지의 한 구성원일 뿐이며 자연은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흙과 물, 동식물과 인간까지 포괄하는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네스는 인류의 건강과 풍요를 위해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등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고,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으로 바꾸는 심층적 생태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큰 자아실현'과 모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생명 중심적 평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의 주장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별 생명체를 희생시키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으며, 생태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62. 갑, 을, 병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모든 생명체는 신성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악이다.
을 : 오직 유정(有情)적 존재만이 이익관심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고려할 책임이 있다.
병 :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을 느끼며 욕구, 지각, 정체성, 목표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며 결코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 ①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가?
② 인간은 동물에 대해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는가?
③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우월한가?
④ 이익관심은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충분조건인가?
⑤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한해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가?

63.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인간이 진정으로 영리하다면 자원으로서의 자연을 가능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자연을 파괴하기 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을 : 한 세대가 자기 세대만을 위하여 이기적 욕망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미래 세대의 생존 근거인 환경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 보 기 >
ㄱ. 인간에게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ㄴ. 환경 보존을 위해 인류 자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ㄷ.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ㄹ. 인간을 위한 자연보호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4. (가), (나)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인드라마당은 끝없이 큰 그물로서 이음새마다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구슬이 자리 잡고 있다. 구슬들은 혼자 빛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구슬의 빛을 받아야만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나)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커다란 풀무*의 바람 통처럼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다.
*대장간에서 불을 지피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 보 기 >
ㄱ. (가)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한다고 주장한다.
ㄴ. (나)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파악한다.
ㄷ.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ㄹ. (가)는 인간과 자연의 엄격한 분리를, (나)는 합일을 추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5. (가)의 관점에서 (나)의 자연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사람들과 나는 한 배에서 나왔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다. 자연은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베풀며,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존재이다.
(나) 부분의 특성과 움직임이 전체를 결정하므로 고립된 입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물리 현상은 고립된 입자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분할해 갔을 때 도달하는 최소 단위의 것들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다.

- ① 자연은 인간과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과학적 측면에서 규명해야 한다.
③ 자연의 모든 존재는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④ 자연은 생명력이 결여된 입자들의 집합임을 인식해야 한다.
⑤ 자연을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14.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는 기후 정의 문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 생태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이 있다.

기후 정의란 기후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로 기후 변화 문제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개발 도상국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선진국보다 훨씬 적지만 피해는 선진국보다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 정의는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고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선진국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피해를 본 나라들에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75%가 선진국에서 배출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관점에서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또한 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 도상국도 산업 구조를 생태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기후 변화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더불어 각 국가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각 국가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환경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윤리적 쟁점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다.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생존 및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기후 변화, 자원 고갈, 환경 오염이 지속되면 후손은 깨끗한 환경에서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미래 세대도 현재대와 다름없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비옥한 토양, 신선한 물과 공기, 에너지 등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대는 미래 세대의 생존 및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 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책임의 원칙을 다음과 같은 정언 명령으로 표현하였다. 요나스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재대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두려움, 겸손, 검소, 절제 등을 제시하였다. 인류 존속을 위해 현재대의 잘못으로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며,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세대가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즉 자연 개발과 자연 보존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의도 환경 문제에 관한 윤리적 쟁점 중 하나이다. 개발론자는 자연이 도구적 가치를 지니며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자연 개발을 강조한다. 반면 보존론자는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큰 이익이라는 점에서 자연 보존을 강조한다. 두 입장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개념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것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재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이다. 즉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개발과 보존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개인적으로는 친환경적 소비를 생활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도 자원을 덜 소비하고 오염 물질을 덜 만드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관련 제도와 법을 마련하고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양열이나 풍력 등을 활용한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나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을 규제하는 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리 협정, 람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과 같은 국가 간 합의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녹색기후기금 등과 같은 제도나 기구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인간의 무분별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생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66. 갑, 을 사상가들이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현대의 기술로부터 산출된 행위들의 규모가 너무 크고 새로워서 전통 윤리의 틀로는 이 행위들을 파악할 수 없다. 이제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인류의 미래와 실존을 고려하는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
을 : 자연 세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이익 관심을 토대로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윤리가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 윤리를 보다 잘 준수하는 일이다.

< 보 기 >
ㄱ. 갑 : 인간을 위해 자연을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ㄴ. 갑 :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규범 체계가 요청된다.
ㄷ. 을 : 해악 금지의 원리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ㄹ. 갑, 을 :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오늘날 환경 문제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을 :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권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도 갖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세대는 미래 세대가 환경적으로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세대의 권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존재와 함께 시작되므로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습니다.

을 : 아닙니다. 권리의 소유는 존재 여부와 무관합니다. 현세대의 행위로 극심한 피해를 겪게 될 미래 세대를 도덕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① 환경권의 귀속을 현존하는 인간으로 한정해야 하는가?
- ②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무는 미래 세대만을 위한 것인가?
- ③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가?
- ④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는 호혜적 관계가 성립되는가?
- 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인가?

6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차원에서 교토 의정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각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별로 배정받은 배출권을 기업별·부문별로 할당하고, 기업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해야 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배출 상한치를 초과한 기업은 초과한 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 ㉠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 ① 자연 보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발을 부정한다
- ② 법적 강제력보다 기업의 자율적 준수만을 강조한다
- ③ 생태계의 순환 과정에 일체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④ 경제력이 있으면 환경 파괴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 ⑤ 개인의 생태적 각성을 통해서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15.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이나 그림, 문학 작품 등을 감상하며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술가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감상하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산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은 윤리적 선(善)의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술과 윤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예술 지상주의와 도덕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술 지상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련성을 낮게 본다. 이 입장에서는 예술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예술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잘못이라고 본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예술 지상주의는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순수 예술론’을 지지한다. 즉 예술가가 윤리적 기준과 관습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예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덕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이 입장에서는 예술이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며,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참여 예술론’을 지지한다. 참여 예술론은 예술가도 사회 구성원이고 예술 활동도 하나의 사회 활동이므로,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회의 도덕적 성숙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예술 지상주의와 도덕주의 중 하나의 입장만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술 지상주의는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간과할 수 있고, 또한 도덕주의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고려하지만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예술을 통해 도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인(仁)에 의지하고, 예(藝)에서 노닐어야 한다.”, “예(禮)에서 사람이 서고, 악(樂)에서 사람이 완성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예술의 심미적 기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술을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방편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의 미적 체험을 통하여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예술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예술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대중 매체가 발달하면서 예술의 상업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예술의 상업화란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이 예술 작품에도 적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예술의 상업화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예술의 상업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예술의 상업화로 주로 부유한 일부 계층이 누리던 예술을 대중들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예술가에게 경제적 이

익은 물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한다.

반면 예술의 상업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예술의 상업화가 예술 작품을 단지 하나의 상품이자 부의 축적 수단으로 바라보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 입장에서는 예술의 상업화가 예술 작품의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한 나머지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아도르노는 상업화된 예술에 관해 '문화 산업'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대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어 문화 산업으로 획일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고유한 체험이 아니라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예술의 상업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의 상업화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영화, 음악, 드라마, 공연, 게임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다. 대중문화란 다수의 사람이 공통으로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대중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 영화를 보는 등 우리의 삶은 대중문화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과정에서 우리는 대중문화 속에 내포된 생각이나 가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가치관, 취향, 삶의 형태 등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중 매체 및 뉴 미디어를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대중문화는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풍자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중문화는 현대인의 삶이나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중가요, 영화, 게임 등의 대중문화가 흥행이나 수익성만을 지나치게 추구

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과도하게 자극적인 요소를 포함할 때가 있다. 이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모방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대중문화의 자본 종속 문제를 들 수 있다. 대중문화의 자본 종속이란 자본의 힘이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의 대중문화는 막대한 자본 투자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의 규모에 따라 대중문화의 흥행이 좌우되면서 투자자나 자금력을 갖춘 일부 문화 기획사가 대중문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상업적 이익을 우선하여 작품이 선정되고 제작되면서 대중문화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획일화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는 대중의 삶도 획일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생겨나면서 대중

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성의 상품화 예방을 강조한다.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의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의 정서에 해로운 대중문화를 규제로 걸러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대중문화의 자율성 및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성적인 요소나 폭력적인 내용을 이유로 규제가 이루어지면 이는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의 문화적 권리를 강조한다. 대중은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찬반양론을 모두 고려하여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의 소비자는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대중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주체적으로 선별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건전한 대중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나친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보다 유익하고 의미 있는 대중문화를 생산해야 한다.

더불어 법적, 제도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법 등을 통해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대중문화에 대한 자율적인 자정 노력도 해야 한다.

69.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닮았으며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건강에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건강해지듯,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게 된다.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

- < 보 기 > —
- ㄱ. 예술은 독창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심미 활동이어야 한다.
 - ㄴ. 예술은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 ㄷ. 예술가는 미(美)를 추구하므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ㄹ.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0.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예술의 목표는 진리라는 생각 때문에 시(詩)만을 위한 시는 시적 품위가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술이란 본래 심미적 가치만을 추구하기에 시 그 자체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시만이 진정한 시이다.

을 : 예술의 사명은 신(神)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인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따라서 예술은 인류에게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① 갑 : 예술의 심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 ② 갑 : 예술이 도덕적 진리를 추구할 때 심미적 가치가 더욱 고양된다.
- ③ 을 : 예술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정의 고양에 기여해야 한다.
- ④ 을 :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 ⑤ 갑, 을 : 예술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71.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악(樂)은 '같은'을, 예(禮)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같은 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예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면,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되며, 그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나) 악(樂)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보 기 >

ㄱ. (가) :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ㄴ. (가) : 예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 모두에 기여한다.

ㄷ. (나) : 음악은 실용적 관점보다 심미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ㄹ. (가), (나) :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의복은 신체를 보호하거나 추위와 더위를 막아 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주는 고유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의복은 자아 및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다. 우리는 의복을 통해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착용하는 의복이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복을 '제2의 피부'로서 자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복은 예의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관혼상제 등의 중요한 행사에 격식 있는 의복을 착용하여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현한다.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을 착용했는지는 그 사람의 됴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복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는 의복과 관련된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명품 선호 현상도 의복과 관련된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명품 선호 현상의 긍정적 입장에서는 명품 선호가 개인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명품의 우수한 품질과 희소성은 만족감과 더불어 소유자의 품격을 높여 준다고 주장한다.

명품 선호 현상의 부정적 입장에서는 명품 선호가 과시적 소비라는 그릇된 욕망의 표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명품을 구매하는 것은 상품 자체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소비와 사치 풍조를 조장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력을 벗어난 그릇된 소비 풍조가 조장되고,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 계층 간의 분열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복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의복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나 자신의 태도를 윤리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바람직한 의복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음식이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먼저 음식은 생명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음식 섭취를 통해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도덕성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영향을 준다. 믿을 수 있는 음식의 생산과 유통은 사회의 도덕성을 구현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음식 재료를 획득하고 가공할 때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간과할 때 독성 성분에 오염된 음식 재료나 인체에 유해한 각종 식품 첨가물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나친 육식은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대우로 이어질 수 있고, 무분별한 식량 생산 및 소비 과정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타인은 물론 생태계를 고려하는 음식 문화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로컬푸드 운동'이나 '슬로푸드 운동'에 동참하기, 육류 소비 절제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음식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인증이나 성분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육류 생산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거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휴식을 제공하며,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처럼 주거는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윤리적 의미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한다.

공동 주택의 폐쇄성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어 이웃 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한 도시에 주거가 밀집하면서 환경 오염, 교통 혼잡, 녹지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집을 오로지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인식하여 집이 가지는 윤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주거의 본질적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집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인간 삶의 기본 바탕이자 정신적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를 고려하는 주거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해야 한다. 15

의식주는 생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의식주 문화를 형성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공동체 및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의복, 음식, 주거와 관련한 생활에 필요한 행동 규범인 의식주 윤리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식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선택할 때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격 대비 만족도이다. 다시 말해 같은 조건일 경우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여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최대의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 이처럼 자신의 경제력 내에서 가장 큰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한다. 합리적 소비는 경제적 합리성이 상품 선택의 기준이 되며, 소비자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만족감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만을 중시한다면 생산자는 원가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먼저 부적절한 원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상품 생산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환경 오염에 관한 대책을 외면할 수도 있다. 또한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저임금을 강요할 수도 있다. 나아가 대량으로 사육하는 동물에게도 큰 고통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 소비만을 중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윤리적 소비’이다. 윤리적 소비란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즉 소비 행위가 타인과 사회는 물론 생태계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가격을

소비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이나 환경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원료의 재배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윤리적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할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 무역을 통해 개발 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다면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그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회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멸종 위기 동식물을 이용한 음식이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고효율 전자 제품이나 농약, 화학 비료 등을 억제한 농산물을 구입한다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여 현재세대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윤리적 소비는 인권, 정의, 환경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한다. 윤리적 소비는 보편적 가치가 실현된 사회의 혜택을 소비자도 누리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로서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개인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 정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 구입을 거부하는 불매 운동, 소비자 단체가 제시하는 윤리적 등급에 따른 상품의 비교 구매, 공정 무역 제품이나 친환경 농산물 등 바람직한 윤리적 상품의 구매,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사용, 재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 인증과 환경 마크, 기업의 윤리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제정 등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인권, 정의, 환경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7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시대의 인간은 고향을 잃고 지구상 어떤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망명자이다. 하지만 집은 이러한 위협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중심적인 집을 스스로 만들어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 때 진정한 거주를 실현한다. 인간은 이러한 거주지의 실현을 통해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

- ① 진정한 거주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로 국한된다.
- ② 인간은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영원한 망명자이다.
- ③ 인간은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
- ④ 외부 공간은 위협과 희생이 아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 ⑤ 진정한 삶의 실현을 위해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73.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다섯 가지를 살펴야 한다. 우선 밥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와 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서 공양(供養)을 받아야 한다.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바른 처사와 좋은 약으로 건강을 보살펴야 한다. 끝으로 도덕을 이루어야 먹을 자격이 있다. 즉 군자는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 ①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다.
- ② 먹는다는 것은 자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이다.
- ③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과정이다.
- ④ 먹는다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이다.
- ⑤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다.

74.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소비의 목적은 소비자의 만족감 충족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소비는 자신을 넘어 사회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소비해야 한다.

< 보 기 >

ㄱ. (가) : 자율적 선택권과 최적의 효용은 소비의 필수적 요소이다.
 ㄴ. (가) : 개인적 선호보다 공공성을 상품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ㄷ. (나) : 생태적 영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비는 소비자의 의무이다.
 ㄹ. (가), (나) : 인권과 노동의 가치는 소비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소비의 목적은 소비를 통한 만족감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을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와 환경 등을 고려하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갑 : 아닙니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소비를 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을 : 그러한 주장은 시장 경제 논리만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① 시장 경제 논리는 비용 대비 최대 편익을 강조하는가?
- ② 합리적 소비만으로 자원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③ 소비 활동을 통해서 자원 남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가?
- ④ 소비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해야 하는가?
- ⑤ 자원 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대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가?

17. 다문화 사회의 윤리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화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였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도입되어 사회 구성원의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와 같은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고 통합하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용광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를 거대한 용광로, 즉 주류 사회에 융합하여 편입시키려는 관점을 지닌다. 동화주의의 입장은 문화적 충돌에 따른 사회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다양한 문화가 사라져 문화적 역동성이 파괴되고, 이주민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샐러드 볼 이론’과 ‘국수 대접 이론’이 있다. 샐러드 볼 이론은 한 국가 또는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한다. 이 때문에 각 재료의 특성이 살아 있는 샐러드처럼 다양한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수 대접 이론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주류 문화는 국수와 국물처럼 중심 역할을 하며, 이주민의 문화는 색다른 맛을 더해 주는 고명이 되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류 문화를 우위에 두기 때문에 타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샐러드 볼 이론과 차이가 있지만, 타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다문화주의 입장을 통해서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하여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차별 없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문화에 대한 관용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존중하는 이성적 태도이다. 영국의 문화 이론가 홀은 ‘차이와 더불어 살아 가는 능력’이야말로 21 세기에 개인이 지녀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타인의 생각이 자신과 다를지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문화를 무조건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위 사례의 명에 살인이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윤리도 문화에 포함되므로 옳고 그름은 사회에 따라 다양하며,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보편 윤리를 위배하는 문화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예 제도나 인종 차별도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난다.

또한 자문화와 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없다. 인간의 삶과 밀접한 문화에 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윤리 상대주의는 보편 윤리를 부정하여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방해한다.

이처럼 윤리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문화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먼저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용해야 한다. 인종을 차별하거나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인권,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수혈주의도 외국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또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용해야 한다.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관용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우리는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관용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서(恕)의 정신을 바탕으로 관용을 실천함으로써 다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종교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와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다. 종교학자 엘리야데는 인간을 ‘종교적 존재(Homo religiosus)’로 규정하며, 종교적 지향성을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종교는 왜 발생하고, 그 본질은 무엇일까?

종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인간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실 속에서 불안과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와 세계를 향한 믿음으로 유한성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

종교의 본질은 엄밀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지닌다. 내용적 측면에서 종교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관한 체험과 믿음을 포함한다. 독일의 신학자 오토는 종교를 ‘엄청나고도 매혹적인 신비의 감정’이라고 정의하며,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직관과 감정, 체험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 종교는 경전과 교리, 의례와 형식, 그리고 교단을 포함한다. 종교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절대자에 대한 설명과 체계를 바탕으로 종교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예배, 미사, 법회 등과 같은 나름대로의 의식과 제의를 통하여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와 교류하고자 한다.

이렇게 종교가 초월적인 세계, 궁극적인 존재에 근거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윤리는 차이가 있다. 윤리는 인간의 이성, 상식, 양심에 근거하여 현실 세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판단과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에 바탕을 둔 도덕적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05

하지만 종교와 윤리는 도덕성을 증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대부분의 건전한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윤리적인 계율과 덕목을 증시한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베푸는 자비를 강조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이슬람교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종교와 윤리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종교는 윤리적 삶을 고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윤리는 종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종교 간에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교 수니파와 시아파 간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통성의 계승, 경전과 교리의 해석을 둘러싸고 종교 내부의 종파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은 유혈 사태로까지 번져 많은 살상자를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종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때문이다. 종교는 대체로 강력한 세계관과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맹신하고 타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때문이다. 타 종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의 종교적 지식에만 근거해 타 종교를 판단하므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종교 간의 갈등은 폭력으로 이어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 및 존엄성을 해치고 평화로운 삶을 위협한다. 나아가 공동체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타 종교에 대해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독선과 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종교 간에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정신을 일깨워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으로 이어진다.

종교 간의 대화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 스위스의 신학자 쾨은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 없고, 종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종교 간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6.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기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동화될 때에만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주류 사회 시민들과 동일한 언어로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동일한 사회 복지를 제공하며 국민 정체성을 고취시켜 이민자 집단을 동화시켜야 한다.

을 : 기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도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민자의 언어로 운용되는 자체의 법적 제도를 보장하면서 이민자 집단과 주류 사회의 결속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 ① 갑 : 주류 문화와의 융합을 위해 소수 문화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② 갑 : 사회권 보장으로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 ③ 을 : 소수 문화에 대한 불관용을 통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 ④ 을 : 소수 집단의 자치를 승인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 문화적 동일성에 대한 요구 없이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7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주류 문화와의 통합 여부는 소수 문화의 구성원이 결정해야 한다. 주류 문화 구성원이 소수 문화의 통합을 강제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을 : 단일한 언어, 문화 전통, 교육 정책을 추구하여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통일된 문화의 부재 때문에 집단 간 결속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갑 : 사회 통합을 위해 소수 문화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 ② 갑 : 소수 문화 구성원에게 문화적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 ③ 을 : 사회적 유대의 강화를 위해 단일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 ④ 을 : 사회 발전을 위해 주류 문화가 문화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 국가의 교육 정책으로 통일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78.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공용어와 공통의 문화를 강조할 경우 오히려 국가 내 집단을 다수와 소수로 갈라놓아 소수 집단이 다수에 압도당하게 된다.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 사회의 다수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관행과 규범을 고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에게 기본적인 시민권은 보장되 관습과 신앙 및 삶의 양식의 통일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집단적 문화를 표현할 여지를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다. 통합은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통합의 실행 가능한 방법은 이주민의 정체성을 국가 전체의 정체성에 증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다. ... (후략).

- ① 통합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행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공용어 사용을 의무화해야 국가적 유대감이 증진됨을 유념해야 한다.
- ③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④ 동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통합 실행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 ⑤ 이주민의 삶의 양식 변화가 그들의 시민권 보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79. 다음 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책임이 종교에 있다. 종교들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세계 평화는 시작된다. 인류는 평화보다 전쟁을, 화해보다 광신을, 대화보다 우월성을 부추기는 종교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 차별의 윤리, 모순의 윤리, 투쟁의 윤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보 기 >

ㄱ. 종교들이 공유하는 가르침의 실천은 화합과 공존의 토대이다.

ㄴ. 종교 간의 관용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ㄷ. 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현실 세계의 갈등과 무관하다.

ㄹ. 보편 윤리의 실현과 종교의 단일화는 인류 생존의 조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 인간은 탄생, 결혼, 죽음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 존재는 이 세계 안에 스스로 현현(顯現)하여 이 세계를 성화(聖化)시킨다. 그러나 세속적 인간은 자신만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 존재를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세속적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탄생, 결혼,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

- ① 종교적 인간은 스스로 성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존재를 믿는다.
- ②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 ③ 종교 의식과 무관한 세속적 일상 의례에도 신성성이 깃들여 있다.
- ④ 세속적 인간은 통과 의례가 갖는 종교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다.
- ⑤ 세속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다.

81.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것의 총체이다. 종교의 역사는 성현(聖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실체가 자연의 대상 속에서 현현(顯現)되는 사건에 마주칠 때, 예컨대 한 그루 나무를 우주적 생명의 이미지로서 접할 때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달리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을 거부하는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 ① 비종교적 인간도 세계를 성(聖)의 드러남으로 인정한다.
- ② 성(聖)이 현현되는 이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 ③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성(聖)을 만나게 된다.
- ④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 ⑤ 인간이 성(聖)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물에 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18.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지역 갈등을 들 수 있다. 지역 갈등은 철도, 공항, 산업 시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이나 투자를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경쟁의 과정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대 갈등을 들 수 있다. 세대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늘날에는 일자리나 노인 부양 문제 등 사회적 쟁점을 둘러싸고 세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념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념 갈등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의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이념의 차이를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할 경우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념 갈등의 예로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다.

사회 갈등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사회 현상에 관한 생각이나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만을 절대시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무시한다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생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놓고 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지역에 사회적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다. 소통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관계는 물론 공공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주제를 두고 소통이 부족하거나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결론이 나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사회 갈등은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

사회 통합이란 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 갈등이 만연하여 충돌과 대립이 일상화되면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되어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

또한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구성원 간의 갈등은 사회적 역량의 결집을 방해하여 결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갈등에 따른 사회 분열은 구성원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해쳐 국가적 어려움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상호 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소통을 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용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

려고 노력할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이 공동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우선시하면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여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법제화하여 이해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복지 정책 등을 확대하여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불평등이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 서로 간의 신뢰와 연대감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전체주의 사회는 통제와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운영되지만, 이를 두고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담론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 통합을 위해 소통과 담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통과 담론을 통해 도덕적 권위를 갖춘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결정과 일방적 통보로 운영되는 사회는 불만과 갈등을 초래한다.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도덕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진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소통과 담론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소통과 담론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소통과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윌 글에서 하버마스는 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체로서 어느 누구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소통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화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인간 존중의 윤리는 소통과 담론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철학자 아펠은 '인격의 상호 인정'이 진정한 소통을 위한 기본 전제임을 강조하였다. 신라의 승려 원효가 주장한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라는 화쟁(和諍) 사상은 현대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포용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진실한 대화에 힘써야 한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상호 간 이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를 속이거나 현혹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진실에 근거하여 거짓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 맹자는 소통을 방해하는 그릇된 언사로 피사, 음사, 사사, 둔사를 제시하였으며,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바른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만일 자신의 무오류성을 강조한 나머지 타인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거짓으로 간주하면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

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철학자 밀은 인간이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하에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심의 민주주의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공적 의사 결정에 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한 의사 소통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

82. 다음 사상가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대화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적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 참여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요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대화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장, 감정, 바람 등을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 ①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 ②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
- ③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대해야 한다.
- ④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⑤ 개인적인 욕구, 희망 사항을 제외하고 발언해야 한다.

8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이성적 논의를 거부하는 것과 엘리트주의적 태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소수만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람의 주장은 상호 주관적으로 검토하는 공적 담론의 장(場)을 통해 자신을 입증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 ① 신이 인간 본성에 부여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강조한다.
- ② 다수에 의한 합의보다 개개인의 주관적인 결정을 중시한다.
- ③ 도덕 판단의 정당화 근거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중시한다.
- ④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의존할 것을 강조한다.
- ⑤ 공론의 장에서 상호 비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함을 강조한다.

8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시민들은 공적 장소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적 토론이 시민들에게 권장되지도 않는다.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과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토론의 절차가 아니라 토론의 결과만을 중시해야 한다.
- ②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 ③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에 대해 다시 토론해서는 안 된다.
- ④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적 토론을 권장할 필요는 없다.
- 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8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 ①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 ②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 ③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④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
- ⑤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의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한다.

19. 민족 통합의 윤리

반세기여가 넘도록 분단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으로 통일에 관한 찬성과 반대 문제가 있다.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인도주의적 차원, 민족의 번영과 발전, 평화 실현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은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감, 혼란에 대한 두려움,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나 거부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앞에서 살펴본 통일에 관한 찬반 근거 중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문제이다. 통일 비용이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통합의 과정에서 막대한 통일 비용이 발생했으며,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적지 않은 통일 비용이 들 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통일을 찬성하는 논거 중의 하나는 통일이 분단 비용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다. 분단 비용이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군사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남북한 모두 인구 및 경제 규모 대비 적정 수준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남북한이 지출하는 막대한 군사비는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게 한다.

이처럼 분단 비용은 분단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민족 구성원 모두의 손해로 이어지는 소모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그러나 통일 비용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며, 통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투자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다양한 통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 편익은 통일에 따른 보상과 혜택으로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 편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분단에 따른 남북한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통일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고,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민족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통일은 국토 면적의 확장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내수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 및 천연자원과 결합하여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해양과 대륙의 요충지에 있는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교통, 물류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통일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는 물론 지구촌 평화의 실현에도 이바지한다. 통일 한국은 경제적 번영과 평화가 조화를 이룬 나라로 자리 매김하여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우리는 통일에 관해 무관심한 태도나 맹목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은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제도와 이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 통합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위해서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먼저 통일 한국은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평화로운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통일 한국은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은 집단주의적 체제 운영을 위해 표현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남한도 과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던 적이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자신의 신념과 선택에 따른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인권을 지향해야 한다. 국제연합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아동 권리 협약, 국제 인권 규약 등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감시와 강압 통치는 북한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 남한도 과거보다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나아가 통일 한국은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교육이나 직업 선택의 기회에 차별이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며, 공정한 법적 절차 없이 부당한 처벌을 하기도 한다. 남한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분배 정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모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처럼 통일 한국은 평화, 자유, 인권, 정의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간에 화해와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 위 자료는 독일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출신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북한 주민은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동포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자 동반자라는 양면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나와 상

관없는 일이라거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부적인 통일 기반 조성은 물론 국제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내부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보 기반의 구축과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튼튼한 안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여 서로 간에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 통일 한국의 미래상 등에 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 비용 문제 등 통합과정의 어려움과 혼란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준비를 통해 통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국제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나 안보 문제가 결부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외교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 각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고,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기반이 되는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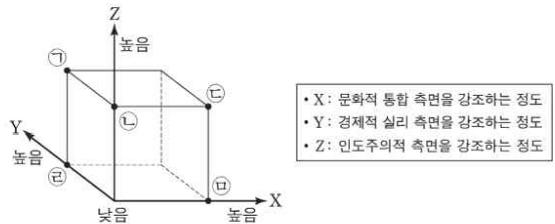
86.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점차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편익도 생긴다. 분단 비용은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지불하는 유무형의 비용으로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 비용은 인도적 지원, 사회 문화 교류 사업 등과 같이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투자 성격의 비용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제도의 통합, 화폐의 통합 등을 위해 통일 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 ① 이산가족의 고통과 외국인 투자 감소는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
- ②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교류 사업은 통일 비용에 포함된다.
- ③ 분단 비용은 소모적 비용으로 민족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평화 비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분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⑤ 경제 협력의 확대를 통해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87.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보다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이질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이산가족의 만남, 북한 주민의 보편적 삶의 권리 실현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
- (나) 통일 문제를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인권 신장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분단에 따른 각종 불안 요인을 극복하여 경제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8.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일은 분단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 역사의 창조 작업입니다. 통일은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그리고 자유와 평등 신장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성취해야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 지상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진적 방식의 통일은 사회적 갈등과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평화적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급진적 방식의 통일보다 통일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통일 편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 예술 등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분야로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체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① 점진적 평화 통일이 급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 ②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협력보다 정치적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
- ③ 인도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 ④ 통일은 이유와 방식을 불문하고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 ⑤ 통일은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

8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북한
 한의 경우,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
 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스
 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
 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이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갑 :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스스로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을 :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은 한반도
 에 긴장 상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와 내정
 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북한도 요
 구할 것입니다.

- 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지니는가?
- ②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
- ③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가?
- ④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⑤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9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
 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치적, 법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어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

(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남북한의
 불신이 해소되어 정치 통합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지구촌 평화의 윤리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삶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바라
 는 이상적인 삶이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국제 분쟁이 끊
 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분쟁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국제 분쟁은 영역과 자원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일어난다.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역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국가의 영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자 국민
 생활의 터전이며, 자국의 영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
 원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 분쟁이 일어
 나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국제 분쟁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종교 등을 포괄하는 문화는 공동체의 중심점이자 집단
 정체성의 토대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타협이나 제삼자의 중재
 가 어려워 갈등이 발생하면 쉽게 분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분쟁은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낳는
 다.

먼저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한다. 국제 분쟁은 국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경쟁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
 려는 과정에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을 개발하여 지구촌
 전체의 불안을 가중하고 평화를 위협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훼손한다. 국제 분쟁은 종교나
 민족 갈등과 결부되면 상호 간 적대감을 증폭하여 집단 살해,
 인종 청소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제 분쟁은 평화, 인권, 정의 등의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지구촌 구성원들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칸트는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환대권을 강조하고 있다.
 환대권이란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이자 존중받을 권리를
 말한다. 목자도 ‘자국을 사랑하듯이 타국을 사랑하라.’라는 겸
 애(兼愛) 사상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
 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이
 해관계가 상충하는 지구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상호 존중과
 관용의 자세는 분쟁의 예방과 평화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로 국제연합이 주도하는 전범 제
 관소가 있었지만, 이는 임시로 운영되는 기구였다. 국제 사회
 는 국제형사재판소 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반인도적 범죄
 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해소
 하고 지구촌에 형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또한 분쟁의 중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분쟁
 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같은 기구를 활용하여 화해와 중재를 실천하고, 갈등 당사국은
 판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분쟁 과

정에서 생겨나는 인종 청소, 민간인 학살 등의 인권 침해 사태는 인류 전체의 비극이자 지구촌의 평화를 크게 훼손한다. 국제 사회는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 평화 유지군 활동과 같이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평화를 되찾고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연합 평화 유지군에 참여하여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촌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구촌의 이웃들이 분쟁으로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며 평화로운 지구촌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경쟁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는 개발 도상국의 일자리 증가 등 인류의 공동 번영과 환경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을 갖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빈부 격차와 절대 빈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국가 간 빈부 격차와 절대 빈곤에 따른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인간다운 삶을 어렵게 만든다. 절대 빈곤에 따른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생명마저 위협받기도 한다.

또한 지구촌 분배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선진국들의 생산 기지와 시장으로 전락한 가난한 나라는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남북문제와 같은 지구촌 분배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하여 해외 원조를 통해 지구촌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기여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싱어는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이므로 도움을 줄 대상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민족, 국경 내부로 한정하지 말고 지구촌 전체로 확대하여 해외 원조와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롤스는 해외 원조가 정의 실현을 위한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목적은 독재나 착취와 같이 사회 구조나 제도가 빈곤을 발생시키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원조를 통해 그들 스스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때 질서 정연한 사회란 독재나 착취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선되어 정치적 전통법, 규범 등의 문화가 적정한 수준에 이른 사회를 말한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

난한 나라일지라도 질서 정연하다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롤스의 관점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복지 향상을 원조의 목적으로 하는 싱어와 대비 된다.

반면 노직은 자선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외 원조나 기부를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 인식한 싱어와 롤스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자 윤리적 행위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 원조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절대 빈곤이 사라진 평화로운 지구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후원과 기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구촌 이웃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이때 원조를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배려하는 태도도 갖추어야 한다.

국가적, 국제적으로는 해외 원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 개발 원조(ODA) 등과 같은 제도를 더욱 확충하고, 각 국가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해외 원조를 윤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처럼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원조 등의 윤리적 책임과 기여를 다할 때 국제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9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세력 균형, 동맹, 비밀 외교 등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나)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국가들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① (가) :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 ② (가) : 국가 간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군비 경쟁은 종식된다.
- ③ (나) : 국제 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 ④ (나) :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 ⑤ (가), (나) :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세계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9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다. 냉전 이후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집단, 인접 국가, 핵심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명 충돌은 종교와 같은 문화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을 : 문명의 차이로 발생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은 관용과 화합의 의지로 극복될 수 있다. 문명 간의 개방과 소통을 위한 노력은 문명 충돌이 아닌 문명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① 갑은 동일 문명권의 국가들이 핵심국을 중심으로 결속한다고 본다.
- ② 갑은 평화를 위해 문명 간에 공유하는 가치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문명의 발전은 타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은 분쟁의 원인이 문명의 이질성에, 을은 소통 단절에 있다고 본다.

9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 ③ 빈곤, 인권 침해 등으로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도 폭력이다.
- ④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 ⑤ 폭력의 개념은 공인되지 않은 비합법적인 무력의 사용으로 한정된다.

94.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하면 질서 정연한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고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정의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빈곤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 ① 원조 대상자의 국적은 원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
- ② 원조는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인 의무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원조 대상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곤한 시민은 제외되어야 한다.
- ④ 원조는 인류의 공리 증진이 아닌 지구적 정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 ⑤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9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을 :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 ① 갑: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의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 ② 갑: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③ 을: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 ④ 을: 원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빈곤자들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 ⑤ 갑, 을: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②	5	①
6	①	7	③	8	①	9	②	10	①
11	③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⑤	17	②	18	③	19	③	20	④
21	②	22	③	23	①	24	⑤	25	④
26	④	27	③	28	③	29	④	30	⑤
31	⑤	32	⑤	33	①	34	⑤	35	④
36	⑤	37	②	38	②	39	⑤	40	①
41	④	42	③	43	④	44	⑤	45	⑤
46	④	47	④	48	②	49	①	50	⑤
51	④	52	③	53	⑤	54	①	55	③
56	④	57	③	58	④	59	②	60	③
61	⑤	62	②	63	①	64	①	65	③
66	⑤	67	①	68	④	69	④	70	③
71	④	72	③	73	②	74	②	75	②
76	④	77	⑤	78	③	79	①	80	②
81	⑤	82	⑤	83	③	84	⑤	85	④
86	②	87	④	88	⑤	89	③	90	①
91	④	92	④	93	③	94	①	95	④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